

복지국가 스웨덴에서 나의 유학생할

변 광 수*

1939년 공주 우성면에서 5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난 나는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5학년이 되자 부친의 국민학교 교장 승진 발령을 한 달 앞두고 터진 1950년 6.25 전쟁과 함께 아버지의 실직으로 덮친 가난의 굴레는 청소년 시절 내내 나의 삶을 옥죄었다. 아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 1970년대 스웨덴 생활의 회고담이다.

1. 유학동기

1965년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한 후 춘천의 성수중상고에서 교편을 잡은 나는 영어와 독어를 가르쳤다. 대학 재학중 내내 불안정한 가정교사로 생계를 꾸려오던 처지에 매달 30일이 되면 어김없이 들어오는 월급봉투가 신기하고 한편 고마웠다. 봉투를 든 채 우체국으로 직행하여 하숙비를 제외한 거의 전액을 부모님께 동생들 학비로 보내드릴 때면 이제서야 장남의 도리를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였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내 꿈이 강원도 시골 교사가 아닌데 하는 회의감이 들어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나 등록금만 낼 뿐 세미나조차 없었던 대학원 공부가 무의미해졌다. 두 학기째 등록금만 허비한 후 공부를 더 하려면 선진국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전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

자비유학은 꿈도 꾸지 못하는 처지라서 김방한 은사님의 제안으로 하와이대학 동서문화센터(East-West Center) 장학생 선발시험에 응시하여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면접시험에 낙방하여 다음 해 재도전을 기약하였다. 그러던 차에 1966년 가을 우연히 동아일보 김진현 기자(노태우 정부 과기처 장관)의 ‘북구에 조국 심는 조승복 박사’라는 인터뷰 기사를 읽고 서신을 통하여 조승복 교수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그분의 안내로 스웨덴 유학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 먼저 문교부의 해외유학 자격시험으로 국사와 외국어(스웨덴어)에 합격한 후에 1968년 1월 29일 스톡홀름을 향해 출발하였다. 출발 전 편도 항공요금 745불이 채 마련되지 않아 망설이다가 출발 당일 오전에 친구 김병기의 주선으로 부족분이 겨우 채워져 떠나게 되었다. 당시에는 국민소득이 60~70불 정도여서 교사 봉급 일년 분을 꼬박 모아도 여비가 되지 않았다. 여행 도중 스톡홀름행 환승을 기다리던 덴마크의 코펜하겐 공항에서 우연히 뵈게 된 장기영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님이 주신 격려금 100불과 항공권 구입 후 잔액 70불이 나의 스웨덴 유학자금의 전부였다. 동경을 거쳐 3일간의 여행 끝에 중세대학 도시 읍살라(Uppsala)에 도착하여 기숙사에 여장을 풀었다.

2. 읍살라대학 입학 등록

읍살라에 도착한 후 처음 며칠간은 스톡홀름대학의 일본학과와 한국학과 연구소장이신 조교수님의 연구작업을 도왔고 그다음 주부터는 대학의 중앙도서관 Carolina에서 주3일, 7개월간 중국의 고전 四部叢書 수백권의 목록을 영어로 작성하는 일을 하여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이 도서관은 장서 200만권, 직원 200명의 스웨덴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었다. 읍살라대학은 1477년에 설립된 왕립대학으로 일찍이 식물학자 린네(Linne 1707-78)와 쉘시온도 체계를 창안한 천문학자 쉘시우스(Celsius 1701-44) 같은 걸출한 학자들을 배출하였다. 봄학기가 시작되자 1968.4.8일에 읍살라대학에 입학등록 절차를 마쳤다. 아마도 정식 유학생으로 온 최초의 한국인이었을 것이다. 가장 기쁘고 흥분한 일은 모든 차원의 국민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교육제도를 실시하

고 있어서 등록금 걱정을 안 해도 되니 살 것 같았다. 서울대에 입학한 후 1 학기를 마치자 등록금 미납으로 제적당한 아픈 경험이 있던 나에게는 천국에 온 것 같은 환상을 지우기 어려웠다. 1995년에 스웨덴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부터는 외국인 학생에게는 등록금이 부과되었다고 한다. 첫 학기에는 스웨덴어 학습에 집중하여 90시간의 어학과정을 끝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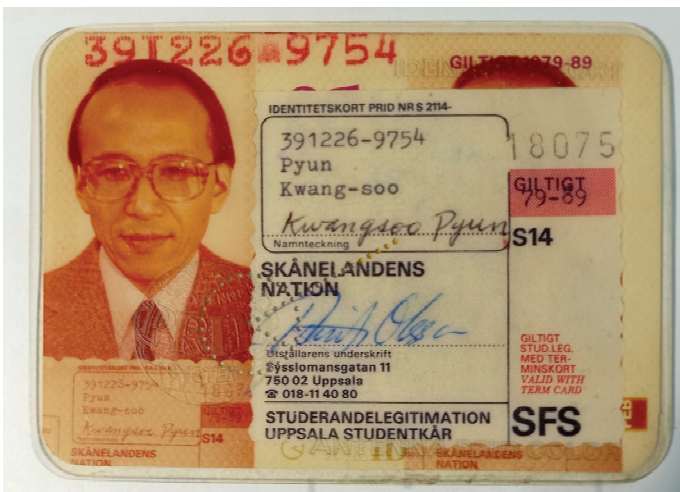
<그림 1> 4월 30일 ‘학생의 날’ 옘살라대학교 도서관 앞에
모여든 학생들



전통적인 스웨덴대학의 학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기당 1 베틀그(betyg)씩 학점을 취득하여 모두 6 betyg를 따면 학부를 졸업하고 Fil. Kand.(filosofie kandidat) 학위를 받게 된다. 다만 한국대학의 일학년 교양 과정부는 이미 고등학교(gymnasium) 과정에서 이수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첫 학기부터 전공으로 들어간다. 학습방식은 강의 이외로 10여권의 관련 전문서와 논문을 읽고 시험 치를 준비가 되면 담당교수와 시간약속을 하여 2시간 정도 토론 끝에 한 학기 학점을 인정받는다. 서울대에서 강의노트 두어 번 읽어보고 학점을 취득했던 학생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다. 그리하여 첫

수강신청 과목인 Collinder교수의 일반언어학개론은 Bloomfield의 Language (1957, 500쪽)를 몇 달 걸려 독파한 후 3수 끝에 학점을 취득했다. 이어서 Witting 교수의 음성학과 중국어에서 학점을 취득하여 1971년 6월 Fil. Kand. 학위를 받았다. 다음 단계로 언어학의 중급, 고급 과정은 스톡홀름대학에서 이수했는데 대학평준화 정책에 따라 대학간에 교수 학생 교류와 상호 학점 인정이 보편화되어 있던 제도 덕택이었다. 1970년부터는 대학교육 제도에 일대 변혁조치가 단행되어 한 학기 단위의 1 betyg가 20 poäng(학점)으로 분화됨으로써 강의도 소단위로 나뉘지고 학점도 분산되어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전통적인 소수 엘리트 교육체제에서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다수인력 양성체제로 변해가는 추세였다. 스톡홀름대학의 F. Kiefer교수(중급), B. Sigurd교수(고급)의 과정을 거쳐 논문 ‘On the particles un/nun and i/ka’ in Korean’을 제출하여 언어학 연구소의 박사과정에 들어갔다(1971.9). 이 논문의 주제는 당시 언어학계에서 관심을 모았던 topic(주제)과 comment(평언)와 관련된 것으로 Sigurd 교수의 호평을 받았다. 한편 박사과정 도중에 스웨덴에 영주할 경우에 사서로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보로스(Borås) 도서관대학을 졸업하여 2년만에 사서자격을 취득하였다(1979.1). 또한 조승복 교

<그림 2> 필자의 읍살라대학교 학생증



수님의 요청으로 1968, 1975년 스톡홀름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도 맡았다. 그러던 와중에 1974년에 한국외국어대에 스웨덴어과가 개설되어 1975년부터 교수요원으로 초청이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거둬 들어왔다. 나는 아직 박사학위 이수 중이라 귀국할 수 없다고 사양하였다. 그러는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교수요원 자격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옘살라대학의 Gerd Eklund 교수가 주관하는 스칸디나비아어 연구소의 개설 과목을 모두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해 놓았다.

3. 가족의 구성

차츰 생활이 정착되면서 외로움과 영양 섭취 같은 현실적 요구에 따라 도착 1년후 1969년 3월에 독일에서 공부하던 친구의 동생을 소개받아 강문봉 대사님의 주례로 스톡홀름 대사관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다음 해에 딸을 얻었다. 아내는 어린이집(daghem) 교사로 취업하여 가게를 이끌고 나는 정부의 대여장학금(studiemedel)을 받아 생활비에 보탬다. 딸애가 태어난 첫 달부터 육아비용으로 자녀수당(barnbidrag)이 지급되었다. 이 수당은 18세까지 지급되고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국가의 대여장학금을 받아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한다. 대여장학금의 일부는 무상이고 나머지는 취업 후 3년째부터 분납 상환하여 65세 정년 퇴임까지 갚는다. 이자는 없고 원금만 상환하면 된다. 결혼부부 학생이 소득에 비해 주택비(월세) 지출이 많으면 지자체(Kommun)로부터 매달 주택보조비를 받는다. 기준은 4인 가족에 응접실, 침실 2개이다. 스웨덴의 자녀 가정은 학교납부금 교과서 대금, 사교육비가 없으니 돈 때문에 쪼들릴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월급에서 최하 30% 이상의 세금을 내고도 생활에는 별 지장이 없다.

1975년에 아들이 태어나 4인 가족이 된 우리는 부부학생 아파트 동네에서 함께 살아가는 스웨덴 친구들에 비해 별 부족함 없이 보통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였다. 마침내 한국외대의 거둬되는 초청을 받고 출국 후 13년이 되는 1980년 2월에 온 가족이 귀국의 용단을 내렸다. 딸애가 10세, 아들이 5세였다. 스웨덴어과 학과개설 6년 만에 처음으로 내국인 전임교수를 맞아 그동

안 외국인 교수 주도로 운영되어 오던 스웨덴어과는 새로운 분위기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부임 첫 학기 시작부터 강의와 학과장 업무에 교재출판(스웨덴어 문법)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다가 1986년에서야 겨우 안식년을 얻어 스톡홀름대학에서 중단되었던 박사논문 *Korean-Swedish Interlanguage phonology* ‘한국인 스웨덴어의 중간언어 음운론’ 연구를 완결하여 공개발표하였다(1987). 이로써 대조언어학에서 영어 다음의 제3의 언어(L3)인 스웨덴어 학습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4. 왜 스웨덴을 가리켜 지상의 유토피아라고 하는가?

우리가 체험한 13년간의 스웨덴 사회는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법질서와 양심이 바로 선 정의로운 사회였다.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회, 인간의 양심과 사회정의를 살아 숨쉬기에 구성원 모두가 서로 믿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사회였다.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온 국민이 황금종이 돈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마음 편히 살아간다. 이러한 이상적 사회가 형성된 것은 1930년대에 사회민주당이 구상하여 발굴한 국민의 가정(folkhem)이라는 국가체제가 성공적으로 작동하여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가 부모가 되어 모든 국민을 가족처럼 전 생애에 걸쳐 따뜻하게 보살피주는 이상적인 사회를 지상에 건설해 놓은 것이다. 이미 1960년대에 이룩해놓은 복지체제를 주변 세계의 변화에 대처하면서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스웨덴의 제 정당들은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성명: 변광수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디나비아어과

E-mail: kspyun@hufs.ac.kr